

<마스크>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입 코 덮개'를 착용했을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이약 한번 잡쉬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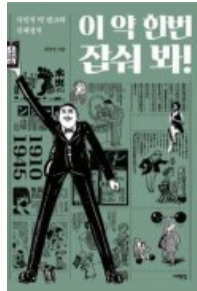
최규진 지음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등장한 것은 1919년이었던 '매일신보'가 '약감' (약성 감기) 예방을 위해 양치질과 마스크 착용을 권했다. 당시 매일신보(1919년 12월 26일) 삽화에는 마스크를 '입 코 덮개'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열악한 나머지 일본보다 마스크 쓰는 사람이 훨씬 적었다.

프랑스 지식인 레지스 드브레는 "이미지는 글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바이러스성을 띤다. 이미지는 신념 공동체를 뿔뿔히 뜯어 놓아 붙이려는 재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지가 공동체의 가치를 전파하고 결속하는 기제라는 의미다.

근대 풍경을 광고 이미지를 통해 들여다 본 '이약 한번 잡쉬봐!'는 이색적인 책이다. 한마디로 약 광고로 들춰 본 일제강점기 생활문화사료로, 저자는 청암대 제일코리안연구소 최규진 연구교수다.

저자는 10년 이상 근대 시각 자료에 천착했다. 이번 책은 "오직 시간을 들여 낱알이 사료를 살펴야만 하는 고된 작업" 끝에 나온 의미 있는 결과다. 단



순히 검색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시간과 눈 공(功)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약은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약과 결합된 광고는 '이데올로기'를 끼워 파는 속성을 지닌다. 책에는 비문자 사료를 매개로 풀

어낸 일제강점기 시대상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광고는 '고백'이라는 말로 쓰였다. 1886년 2월 22일 세창양행이 '고백(告白)', 즉 광고를 한 것. 1860년대부터 일본에서 쓰기 시작한 광고(廣告)라는 어휘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저자에 따르면 '고백'을 광고 뜻으로 쓴 것은 한·중·일 3국의 공통 현상이었다.

책에는 풍부한 근대 풍경이 소환된다. 마스크에서 생리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상의 소설 '날개'에

나오는 아달린, 윌트 디자인의 마키마우스까지 소개된다.

당시 의약품을 취급하는 이들은 신문과 잡지에 광고 게재뿐 아니라 '포스터, 선전지, 선전대, 옥외광고, 간판, 광고판 등 여러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했다. '동아일보' (1930년 10월 15일)에는 영등포 철로변에 세웠던 '조고약'과 '천일영신환' 광고판이 나온다. 1925년 3월 4일자 '조선일보'에는 광고지가 경성 거리로 뒤덮였을 풍경을 그린 삽화가 등장한다.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면 광고지 아래 사람의 다리가 보일 정도다.

이러한 매체에 실린 광고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 약품이었다. "의약품이 58.5%를 차지하고 장신구 17.5퍼센트, 화장품 10.2퍼센트" 순이었다. 이 말은 근대 신문 잡지 면의 상당 부분이 의약품 광고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의약품 가운데서도 어떤 품목이 가장 많았을까. "성병 치료제가 가장 많은 15.6퍼센트, 자양강장제

가 13.5퍼센트, 소화기류가 8.8퍼센트"를 차지한 것에서 보듯, 당시 위생이나 질병의 관념 정도를 추측해볼 수 있다.

최음제와 관련된 제품 광고도 눈길을 끈다. 매일신보(1937년 10월 16일)에 게재된 '킹오브킹즈'는 "30분이면 흥분 상태에 빠지는 성욕 촉진제"라고 소개돼 있다. 다른 날짜 광고 지면에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비법을 적용한 약으로 묘사돼 있다. "반절은 깨어 있고 반절은 취한 상태"라는 자극적인 문

구가 '에로 삽화'와 함께 실려 있다.

의약품과 관련 가장 큰 시장은 소화제 분야였다. 활명수는 대표적인 약이었으며 "공중에서만 복용하는 생약의 비방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한다"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소화기 질환과 연계된 약 가운데 '정로환'에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있을 때 먹는 약으로 당시 광고가 자못 특이했다. 그러나 '정로환' (征露丸)에서 '로' (露) 자는 러시아를 뜻했다. 당시 일간지에는 "정로환은 일로전역(러일전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창제 발매된 위장, 폐, 녹막 등의 묘약"이라고 표현돼 있다.

저자는 "우리네와 똑같이 생로병사의 고뇌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리고 '약의 잔치'에 제대로 초대받지 못했던 가난한 이들의 삶을 되새기며 인문학적 사유의 한 가닥을 가다듬어 보기를 권유한다"고 밝힌다.

<서해문집·3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활명수 광고 (조선일보 1929년 7월10일)



1939년 6월16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비타민 C 광고. "미용과 영양에 우수한 효력"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서해문집 제공>

스노볼 1·2

박소영 지음

영혼까지 얼어붙을 것 같은 영하 41도의 혹한기. 미래 사회 어느 날 극한의 추위에 노출된 바깥세상과 특권층이 사는 따뜻한 구역 '스노볼'로 양분된 세계가 존재한다. 16세인 '전초밤'은 바깥세상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인력 발전소 노동자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는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채널 60번 리얼리티 드라마의 주역 '고해리'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해리는 전초밤과 동갑내기인 스노볼의 '액터'다. 액터는 스노볼 안에서 거주하는 이들로, 이들은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카메라에 노출되는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 창작소설 공모전에서 창작스토리상을 수상한 박소영 작가의 '스노볼'은 미국 등 3개국에 번역 수출될 만큼 탄탄한 스토리를 인정받은 작품이다. 장미×카카오페이지 제1회 영어덜트 소설상 대상 수상작이며 CJ ENM 전직 영상화 된다.

작품은 냉혹한 스노볼 세계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생존 게임을 다룬다. 상상력과 몰입감을 높이는 서사는 특유의 SF 소설의 재미를 선사한다.

전초밤은 어느 날 스노볼의 비밀의 공간을 발견한다. 일명 '거울방'. 여기에는 스노볼의 체계를 지휘하는 이본 미디어 그룹,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세계에 거대한 비밀과 음모가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동안 자신의 꿈을 위해 왔던 전초밤은 비로소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울을 들여다 본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나를 움직이게 한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전민의 소설가는 "읽다 보면 어느새 손을 맞잡고 함께 달리고 있다. 결백한 사람만이 시스템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창비·각 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나 아렌트와 차 한잔

김선옥 지음

한나 아렌트(1906~1975)는 독일 출신의 정치 이론가이자 철학자로 공공성 문제를 탐구했다. 독일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점은 그의 존재 방식을 규정했다. 아렌트는 지난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초반까지 유대인 문제에 전념했다. 당시의 글은 대체로 '전체주의의 기원'에 수렴되며 사상적 단편은 제자 제롬 콘이 편집한 '이해의 에세이 1930~1954'에 정리돼 있다.

아렌트 사상 가운데 핵심은 "정치 행위는 곧 언어 행위"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어학회 회장인 김선옥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책 '한나 아렌트와 차 한잔: 그의 사상과 만나다'는 아렌트의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텍스트와 학적 계보에만 머물지 않고 아렌트가 견지했던 삶의 태도와 시대 분위기 등도 들여다본다.

아렌트는 무엇보다 거짓 정보의 기만적 대화를 근간에서부터 혼돈하는 위험성을 인식했다. 사실의 중요성과 시민의 책무를 강조한 것은 그러한 맥락이다. 언어의 마비가 정치의 중단을 일으키고 중국은 자유 상실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저자는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 개념 외에도 정치가 언어와 경제, 철학과 갖는 관계에 주목한다. 특히 오가는 말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행위는 설명과 공감이 주된 요소이며 이의 목적은 설득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논리적 증명보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저자는 "대화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설명은 이론적 증명, 즉 논증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의견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한다.

<한길사·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가와 친구들

이소영 지음

독일 뉘른베르크 출신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1471~1528)는 생애의 주요 순간마다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그의 나이 28살에 그린 '자화상'은 당시 미술계에 큰 화제를 모았다. 한울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꾸민 머리 모양과 고급 모피를 두른 모습은 이전의 다른 화가들의 자화상과는 결이 달랐기 때문이다.

금세공사의 아들이었던 뒤러가 중세 미술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법률가 집안 출신의 동네절친 빌리발트 피르 크하이머의 도움이 컸다.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피르크하이머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뒤러에게 고전에 대한 지식을 전달했고 종교와 인문학에 통달했던 그와의 대화를 통해 목판화 연작 '목사록' 등이 탄생했다.

서점 '마그엔그레'의 운영자이자 미술서술가인 이소영이 펴낸 '화가의 친구들'은 세기의 걸작을 남긴 화가들의 은밀하고 매력적인 만남을 담은 책이다. 1부 '어쩌면 서로 닮았을 별난 만남들', 2부 '예술가의 우정은 식지 않는다', 3부 '기묘한 인연은 어떻게 명화를 꽃피웠나' 등 3부로 구성된 책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고흐, 피사로, 피카소, 드가, 프리다 칼로, 앤디 워홀 등 거장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펼쳐진다.

클림트의 '의학', '키스' 등의 기묘한 문양은 한 의대 교수와의 인연을 통해 현미경으로 봤던 세포들의 모습에 매혹된 결과물이다. 미술과 과학, 화가와 의대 교수라는 이질적인 조합이 시대를 앞서가는 명작을 탄생시킨 운명적 만남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무언가를 혼자서 해내는 일은 없으며, 화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주변 인물들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어크로스·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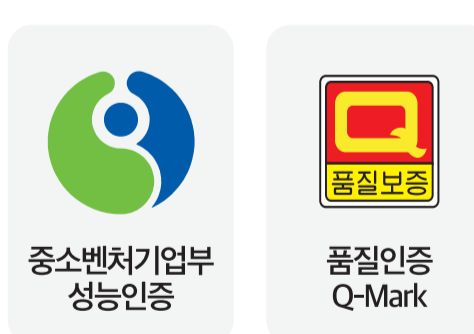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